World p/04

메시 "도쿄 말고 마드리드"

metro

메트로 2013년

Entertainment p/16

엑소 1집 벌써 70만장 돌파

이석기 오늘 중 영장실질심사

NEWS p/02

불황형 범죄 절도·사기 증가

NEWS p/03

FESTIVAL p/12

조용필 15년 만에 일본간다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5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추신수 MVP경쟁 다크호스

이석기 체포안 통과되자마자 강제구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강제구인 당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의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10월19일은 '공채 A매치 데이'

금융공기업·일부 대기업 짜맞춘듯 한날 시험
구직자들 "떨어지면 끝… 갑의 횡포" 볼멘소리

"우수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기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갑의 횡포다."(구직자)

본격적인 공채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금융 공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다음달 19일 동시에 인사 필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수만 명의 구직자들이 이날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A매치 데이', '제2의 수능일'이란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10월 19일 대졸 신입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다. 아직 채용 공고를 발표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금융 공기업도 이날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기업의 채용 규모는 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구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라 응시생만 2만~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 공기업에 우수 인재들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기업들이 시험을 같은 날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 공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한은과 금감원이 시험 일정을 발표하면 나머지 금융 공기업까지 가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같은 날 시험을 자주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재계 맞수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적성검사를 같은 날 치르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 기업 "인재 확보 불가피한 선택"

이처럼 기업들이 시험일을 동일하는 이유는 뭘까. 기업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시험 날짜가 다를 경우 실력이 뛰어난 구직자가 여러 곳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2·3차 전형으로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등 채용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직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편의주의적인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 공기업에 도전하는 이모(25·성균관대 4학년)씨는 "A매치 데이 때 선택한 업체에 떨어지면 다른 업체도 갈 수 없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면접일이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필기시험 날짜만이라도 달리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직자들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종석 인크루트 대표는 "구직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직무를 명확히 한다면 집중도가 높아져 오히려 취업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야구에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자들이 스트라이크존을 좁혀 대응하듯이 구직자들도 기회가 줄어든 만큼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유치원 카드 안돼요"

80% 단말기 없어…강남·서초는 설치율 되레 하락

전국 유치원의 80%는 유치원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제출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시·도별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061곳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20.1%인 816곳으로 집계됐다.

고사리손으로 만든 계란주머니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 비율은 2009년 8.6%, 2010년 11.?%, 2011년 15.4%, 2012년 18.7% 등 점점 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설치율이 떨어지거나 주춤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부산은 8.2%에서 8.0%, 경기는 20.9%에서 20.8%, 충남은 11.5%에서 11.3%, 제주는 13.6%에서 9.1%로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14.2%에서 14.4%로 소폭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남부(구로·금천·영등포구)와 북부(노원·도봉구)는 각각 8.0%와 9.1%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중부(용산·종로·중구)는 35개 유치원 중 1곳도 설치가 안 돼 있었다.

고액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지역(강남·서초구)은 단말기 설치율이 2012년 12.8%에서 2013년 12.5%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체포안 통과 당일 몸싸움 끝 강제구인

내란 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인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헌정사상 첫 국회가결…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5일 결정된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수원지법에 접수됐고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오후 6시30분쯤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오후 7시20분쯤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 앞에 도착, 강제구인절차에 착수했다.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측 인사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참여했던 여야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통과 후 미묘하게 엇갈리는 내용의 공식 반응을 내놓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제2라운드 돌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뜨지 못한 세빛둥둥섬 단상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 2년여간 방치되다시피 한 한강의 인공섬 '세빛둥둥섬'이 개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139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완공됐으나 사업이 표류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등이 개장을 위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나서면서 다시 기대감이 일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올해 안에 개장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기엔 금액이 너무 높으며 그렇다고 시행사인 플로섬이 요구하는 임대료 수준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기업도 딱히 없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플로섬 간 이견 차가 좁혀지면서 세빛둥둥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만큼 공공 성격이 강한 한강변에 위치한 세빛둥둥섬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을 넘어 문화 복지의 차원에서 활용돼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만 봐도 스페인 빌바오 네르비온 강변의 구겐하임미술관이나 영국 런던 템스 강변에서 옛 공장을 리모델링한 테이트모던미술관 등의 현대미술관들은 '강'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도시민의 휴식처 역할도 하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세빛둥둥섬이 막대한 빚을 내 지어졌다는 '세빛둥둥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울 시민의 보편적인 문화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정희 "총기탈취는 농담"… 궤변일까 전략일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경찰에 이끌려 나오다가 실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5월 12일 모임에서 참석자 130여 명 가운데 1~2명이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농담에 불과했다고 밝힌 셈이다. 날조 주장을 의다 농담이라고 얼버무리는 국면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발언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철도시설 마비를 위한 통제시설 파괴, 전화국 파괴,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을 모임 참가자들이 거론한 것으로 돼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민준기자

노태우 추징금 16년 만에 완납

동생 재우씨 150억 대납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 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노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전재용 "곧 자진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재용씨는 미납 추징금 중 1000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중랑장학기금 1년 만에 10억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중랑장학기금 111기부 운동 시작 1년 만에 장학기금 10억7000만여 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랑장학기금은 1가정 1년 1만원 이상 기부해 장학기금을 형성, 우수 인재 발굴·육성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구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을 합해 총 56억원이 마련됐다.

부동산 전화상담 시스템 도입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부동산 관련 상담 시 도면을 보면서 전화로 상담하는 '보여주는 디지털 부동산 전화상담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과 민원인 PC가 같은 정보에 접속해 현장 사진과 도면을 보면서 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이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http://www.geumcheon.go.kr

의성 허준축제 캐릭터 점등식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제14회 의성 허준축제(10월 12~13일)를 앞두고 허준박물관 일대에 의성 허준과 의녀를 캐릭터화한 테마등을 설치하고 6일 점등식을 한다.

테마등은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앞에서 구암공원 인근까지 총 2km 구간에 설치된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축제 기간까지 40일간 불을 밝힌다.

화학사고 예방 현장점검 백헌기(오른쪽 둘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보건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백 이사장은 이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안전보건 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201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4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정보관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서류 접수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은 13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며 전체 모집 정원의 66.4%인 25만1608명을 선발한다. /연합뉴스

불황탓 절도·사기 늘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도 증가…살인·강도는 감소세

지난해 살인·강도 범죄 발생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성폭력·절도·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179만3400건으로 전년(175만2598건)보다 4만802건(2.3%) 증가했다.

반면 검거는 137만121건으로 전년(138만2463건)보다 1만2342건(0.8%) 감소했다.

6개 지표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은 2011년 1204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209건(17.4%) 감소했다. 강도 역시 3994건에서 2587건으로 1407건(35.2%) 줄었다.

살인은 2009년 1137건을 기록한 이래 2012년 995건으로, 강도는 2009년 6370건에서 2012년 2587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지난해 1만9670건으로 전년(1만9498건)보다 172건(0.8%) 늘었다. 절도는 28만1362건에서 29만460건으로 9098건(3.2%), 사기는 22만3470건에서 23만5366건으로 1만1896건(5.3%) 증가했다.

절도·사기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6489건(5.8%), 6510건(3.9%) 감소했다. 강간·강제추행 검거는 2011년보다 226건(1.3%)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죄는 장물 처분이 쉬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절도가 증가했고 사기는 경제불황을 틈탄 신종 금융사기가 늘었으나 강간·강제추행은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적 개선에 따라 신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초·중·고교생 1년새 24만명↓

정규 교원 1000여명 줄고 기간제 교사 3000여명 늘어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4만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고등학교 정규 교원은 1000여 명 줄고 기간제교사가 3000여 명 늘었다.

교육부는 4일 '교육기본통계'를 발표, 초·중·고등학생 수는 652만9196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1843명(3.6%)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집계된 이 통계를 보면 감소율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4%, 고등학생 1.4%로 저학년 학생일수록 감소폭이 컸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31.7명, 고등학교 31.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가량 줄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 수는 43만6560명으로 2730명(0.6%) 증가했다. 정규 교원은 초등학교(1117명 증가)를 제외하고는 중학교(284명), 고등학교(799명) 모두 감소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초등학교(967명)에서는 감소했으나 중학교(1979명), 고등학교(1260명)에서는 증가했다. /김유리기자

한반도평화대회 27일 개막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가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4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위로와 평화,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을 주제로 평화의 쌀 안치와 기념공연, 고불문 낭독, 평화의 타종, 진혼살풀이, 천도재 등을 펼친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해 서울시민 35만명 경기도민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민 35만 명이 경기도로 이사하고 경기도 민 25만 명이 서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35만4000명으로 전체 타 시·도 전입 인구의 54.4%를 차지했다. 주로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경기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입주했다는 게 경기도 분석이다.

경기도로 순이동(전입-전출)한 인구 64.1%가 김포(2만9000명), 수원(2만4000명)에 집중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로 전입한 경기 도민은 25만4000명으로 전출한 경기 도민의 44.8%였다.

인구이동 이유는 주택, 직업, 가족, 교육 등 순이었으며 연령별 순이동 인구는 20~30대가 60.3%로 가장 많았다. /김유리기자

장애인 가정 찾아 쓸고 닦고 '러브하우스'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용석) 1004지역사회봉사단 소속 그린나래봉사단(단장 장일균, 이하 봉사단)은 지난달 10일 합천군 가야면 재가 장애인 세대를 방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 합천군 청소년봉사단체 히트(H.I.T)와 함께 이루어졌다.

봉사단 15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 안팎 쓰레기 치우기, 도배 및 장판 교체, 부엌 청소, 싱크대 교체, 전등 교체 및 전기 배선 정리, 천장 보수 작업, 방충망 교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재가 장애인 홍모씨의 경우 알코올 의존, 기분(정동)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위생상 전반이 부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봉사단이 깔끔히 정리·정돈한 집 안팎을 보고 집주인 홍씨는 연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1004지역사회봉사단 소속 그린나래봉사단이 지난달 10일 경남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씨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돼 기쁘다. 이런 도움을 받은 걸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봉사단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은 사회복지 종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봉사단은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후원으로 충당하며 2010년부터 월 1회 주거 보수 위주의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단은 차후에도 격월로 재가 장애인을 방문해 부족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정·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1004지역사회봉사단 취족 및 참여를 원하는 봉사단체·동아리는 국번 없이 1688-1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리기자

홈페이지(vms.or.kr)에서는 1004지역사회봉사단을 위해 봉사활동 대원을 모집 중이다. 또 한달 1회의 자원봉사 4시간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테레사 수녀 영면

1997년 9월 5일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구호하며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은 테레사 수녀가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본명 아그네스)는 아일랜드 수녀원에 들어간 뒤 인도 국적을 취득하고 콜카타 빈민가에 살면서 천주교계 고교의 교사, 교장을 역임했다.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 마더 테레사로 불리며 평생 가난한 이와 집 없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197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올림픽 개최지 투표만 끝나봐~

日혐한단체, 최근 2개월간 중단했던 시위 8일 재개

일본 극우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이 도쿄가 입후보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투표가 종료하면 곧바로 반한 시위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특회는 투표를 앞둔 최근 2개월간은 시위를 중단했다.

4일 재특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특회는 오는 8일 낮 12시부터 한인 상가가 밀집한 도쿄 신오쿠보에서 한국 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도쿄, 마드리드, 이스탄불 등이 입후보한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는 만큼 예정대로라면 재특회는 도쿄의 올림픽 유치 여부가 확정된 직후 시위를 벌이게 된다.

재특회는 '한국인을 죽이자'는 등 비이성적 구호를 외치며 양산 참가에 큰 역할을 하는 단체다. 지난 6월 말 이후로는 인종차별 논란 등 올림픽 유치에 미칠 여파를 감안해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도쿄=연합

메시는 마드리드 팬 3일(현지시간) FC 바르셀로나의 간판 스타인 리오넬 메시가 앙숙인 레알 마드리드의 연고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의 2020년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셔츠를 입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평양 도착 로드먼 VIP대접

미국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52)이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CCTV는 북한 당국이 전날 오후 체육성 관계자들을 공항에 보내 로드먼 일행을 직접 영접하게 했다고 4일 보도했다.

로드먼 일행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 북한이 대기시킨 벤츠 승용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차의 호위를 받기도 했다.

평양에 도착한 로드먼은 차에 오르기 전 평양 주재 외신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외교 활동이 아닌 옛 친구인 장군(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만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최기자

미·러 '시리아 해법' 나올까

G20 정상회의 오늘 개막 … 박 대통령, 아베 日 총리 만날지도 관심

시리아 사태와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해법은 나올까.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6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폭로한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와 시리아 사태 해법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리아 사태는 G20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열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시리아 공습안을 의회 표결에 넘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외를 겨냥한 설득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도 2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을 뒷받침하는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3일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유럽이 단결해야 한다"며 시리아 군사개입 의지를 재확인한 상태다.

반면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는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도 '주권국가 내정 불개입'이라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의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기설에 휘싸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 등 출구전략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국 국가들 사이에서는 역시 문제와 영토 분쟁을 놓고 자연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유출수 문제를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고 각국 정상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짧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푸틴은 히틀러" 성적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에서 게이 록조바얀 앙성애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러시아 의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공화 소속 하원의장 "오바마 지지"

시리아 공습 상하원 온도차 공화당 장악한 하원이 열쇠

상원은 찬성, 하원은 반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시리아 군사개입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미국 의회의 기류가 이처럼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현재 상하원 모두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다. 하지만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이날 오후 현재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에서는 상원(전체 100명)에서는 찬성 15명-반대 5명-미정 14명이었고 하원(전체 435명)에서는 찬성 14명-반대 42명-미정 2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리아 군사개입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 열쇠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내 여론은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형태의 군사개입이든 반대하는 의견이 59%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다. /이국명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옆에서 경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market index <4일>

코스피	코스닥
1933.03 (−0.71)	526.16 (+0.27)
금리	**환율**
2.86 (−0.27)	1094.50 (−4.80)

뉴스 & 뉴스

럭셔리펀드 수익률 하락

● 일부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휘청이면서 명품 브랜드에 투자하는 럭셔리 펀드의 수익률도 주춤했다.

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럭셔리 펀드 4종의 수익률은 −0.50%를 기록했다.

럭셔리 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6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4% 넘게 떨어졌으며 지난달 신흥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1년(17.79%), 2년(32.96%), 3년(65.61%) 등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우수하다.

/김현정기자

손보사 1분기 수익 반토막

●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올 1분기 순익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 1분기(4~6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6.1% 줄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채무 상환 불이행(디폴트)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액(2400억원)과 자동차보험 적자 등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현정기자

코스피·닛케이 '역전 현상'

● 아베노믹스 효과가 약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가 차별화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6월 말 1863.32에서 8월 말 1926.36으로 3.38% 상승한 반면,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만3677.32에서 1만3388.86으로 2.11% 하락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도 한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현정기자

한국 GDP성장률 60계단 추락 '117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새 60계단 추락해 세계 117위로 내려앉았다.

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0%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6.3%로 세계 57위였지만 2011년에는 3.6%로 102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2.0%까지 떨어져 117위를 기록하면서 결국 2년 새 60계단이나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실질 GDP 순위도 34개국 중 빠르게 추락했다. 한국의 OECD 내 성장률 순위는 2010년 2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2011년에는 8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위로 내려앉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충격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겹친 결과 지난 2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지기자

온라인 금융교육 클릭해볼까

금융위 교육포털 '금융e랑' 콘텐츠 다양… KB금융·한국투증도 서비스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금융 교육까지 바꿔놓았다.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정보 서비스 '이프렌드 네비'를 최근 오픈했다.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주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종목 발굴 기능을 제공하고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매일 10~20개의 종목을 선정해 투자 유망 종목을 제공하는 '오늘의 종목'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 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포털 '금융e랑'을 지난 4월 가동했다. 금융e랑에서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찾아서 클릭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금융 교육 콘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 분야별로 세분화했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청소년·대학생·직장인·일반인 등이며, 생활금융 교육·신용관리·금융사기예방·자산관리·대출·은퇴 설계 등 6개 분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방문과 초청 교육에 집중했지만 올해부터 교육 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주요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사이트 '허브넷'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바쁘다 바빠" 추석 택배전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보름 남짓 남긴 4일 서울 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추석 기간에 소포와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183만 개 증가한 130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출산휴가 중에도 국민연금 내는게 유리

출산휴가 동안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게 여기는 직장 여성들이 많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 기간 납부 예외나 납부 고지 유예를 해달라고 신청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최소 30일간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료는 납부 고지 유예 기간에만 잠시 내지 않고 뒤로 미뤄둔 것일 뿐이다.

/김민지기자

월세의 습격… 강남3구 전세보다 70%↑

일부선 "8년후 수도권 전셋값>매매가" 전망도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고 주택 매매 가격이 전셋값을 밑도는 주택 시장의 가격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월세 가격은 전세금보다 이미 70%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8년간 수도권 전세난이 이어져 2021년엔 수도권의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강남3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6679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의 실질 부담액이 전세보다 69.4% 많았다.

분석 결과 강남3구의 3.3㎡당 전세 비용은 454만원, 전액 보증금(월세) 비용은 773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라도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약 319만원(70%)의 비용을 더 치르는 셈이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져 '깡통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수도권의 전세난이 2021년까지 이어져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담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 시장의 흐름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매 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 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전세가율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시점인 100%를 넘어 최고점인 100.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1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203429
		2조	670158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45094
4등	100만원	각조	15637
5등	2만원	각조	470
6등	2000원	각조	13.58
7등	1000원	각조	2.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 겸 회장 남규호
사장 편집인 김조헌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86)

OD Musical Company, CJ E&M & Interpark Theater present

21세기 최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온다!

GREEN DAY'S

아메리칸 이디엇

the groundbreaking BROADWAY musical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2013. 09. 05 ~ 22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OD MUSICAL COMPANY CJ E&M 인터파크 씨어터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yes24

'터치' 잘하는 커플 스마트한 웨딩마치

결혼 준비에 유용한 앱들

가을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의 손가락이 바빠지고 있다. 결혼 준비를 돕는 다양한 앱 때문이다.

결혼식 날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부 관리가 필수다. '뷰티민미'(사진)는 다양한 뷰티 관련 정보 및 온스타일 '겟잇뷰티', '렛미인3' 등 CJ E&M 방송 프로그램의 풍부한 뷰티 클립에 접근하기 쉬도록 만든 뷰티 전용 앱이다.

뷰티 트렌드부터 유명 뷰티 멘토들이 제공하는 메이크업 및 헤어·패션 노하우, 맞춤형 다이어트 비법까지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알찬 정보들로 구성됐다. 또 제품 메뉴의 콘텐츠 상세 보기를 통해 네이버 쇼핑 뷰티 관련 제품을 살 수 있어 편하다. 이 앱은 지난달에만 15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웨딩 플랜북'은 예비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을 스마트폰에서 쉽게 알아보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앱이다.

방대한 양의 예식 준비 리스트를 일정·예산·연락처별로 찾아 열람할 수 있으며 입력한 일정 리스트를 날짜·기나다 항위 순서 별 등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연락처 리스트의 '원 터치 전화 걸기', 주소 리스트의 '지도 보기'와 같은 기능을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웨딩 박람회 정보나 웨딩 관련 사이트, 웨딩 스토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다른 예비 부부와 결혼 준비 과정,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신랑신부모여라'도 인기다.

친구들과 톡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이미 결혼한 이용자들도 일상을 공개하거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전문가와 톡하기'로 들어가 글을 남겨놓으면 가구 전문가, 혼수 전문가, 신혼여행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1:1 톡하기' 방에 들어가면 전문가와 모바일 메신저처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실시간 통역 앱 '지니톡'은 신혼여행지에서 빛을 발한다.

스마트폰 마이크에 한국어로 말하면 곧바로 외국어로 바꿔준다. 반대로 외국인이 말을 할 때 스마트폰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준다.

/차성호기자 csh@metroseoul.co.kr

돌아온 시작버튼…검색기능 '올킬'

콩콩 IT 리뷰 - 윈도 8.1

시작 버튼의 부활

다음달 18일 출시되는 윈도 8.1의 한 줄 평이다.

윈도 8.1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돌아온 시작 버튼'이다. 윈도 8.1은 윈도 8에서 없앴던 시작 버튼을 하단 바 왼쪽에 MS 로고 모양으로 돌려놓았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일 모양 아이콘이 새겨진 시작 화면이 뜬다.

윈도 8.1을 주로 데스크톱 환경에서만 이용한다면 하단 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속성 기능으로 들어가 시작 화면을 데스크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이콘 모양 변화도 윈도 8.1의 특징 중 하나다. 넓게·보통·작게 3개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룹 제목도 직접 입력 가능하다.

검색 기능의 외연도 넓혔다. 예를 들어 윈도 8.1 검색에서 '이효리'를 입력하면 PC 내부 파일 검색뿐 아니라 빙 연계 음원, 최신 뉴스, 프로필 정보가 뜬다. '불국사' 같은 명소를 입력하면 지도와 관광 정보가 함께 검색된다.

윈도 8.1에서는 사진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디바이스가 잠금 모드일지라도 화면 터치를 밑으로 눌러 내리면 카메라 촬영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앞 버전과 달리 사진 보정, 자르기도 할 수 있다.

다만 윈도 8.1에 탑재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11 호환성이 숙제다. 터치 환경이 아닌 이용자에게 윈도 8.1은 여전히 어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익숙함을 넘어서느냐가 윈도 8.1 성공 관건이다.

/정성훈기자 [illegible]

다이아 닮은 '위스키 황제'

임페리얼 패키지 리뉴얼 위조방지 기능도 강화해

다이아몬드 커팅을 적용한 네모난 패키지가 은은하게 빛나는 위스키 '임페리얼'의 새 모습이 공개됐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모던하게 패키지를 리뉴얼한 임페리얼을 소개했다. 역동적인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을 적용한 이번 패키지 변경은 임페리얼 12년산·17년산 19년산 21년산 등 전 언산에 걸쳐 적용된다.

디자인 변화와 함께 위조 방지 기능도 강화됐다. 역을 한번 개봉하면 노란색 밴드가 역 상단에 떠올라 소비자들도 쉽게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용량에도 변화를 줘 판매가 저조했던 12년산 700㎖ 제품은 단종하고 17년산 330㎖ 제품을 350㎖로, 21년산 450㎖ 제품을 500㎖로 각각 증량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용량을 늘렸는데도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장 마누엘 스프리에 페르노리카 코리아 사장은 "위스키 시장의 침체가 있는데도 임페리얼은 지난 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2.4% 성장했다"며 "임페리얼 뉴패키지 출시를 계기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성장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스프리에 사장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이천 공장 매각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소문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막 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한 상태라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효순기자 hsoon@metroseoul.co.kr

블랙야크 창사 40주년 '히말라야를 넘어 세계로' 발간

국산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창사 40주년을 맞아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사료집 '히말라야를 넘어 세계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본책과 별책 등 2권으로 발간된 사료집은 블랙야크의 40년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 산악 문화와 아웃도어 산업의 변천사를 통계·사진 등의 사료를 토대로 재구성했다. 더불어 국내 아웃도어 1세대인 창업주의 경영도 함께 엮었다.

블랙야크는 창사 4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www.donghnl.co.kr)에 사이버 역사관도 개설했다.

1973년 2월 회사명 '동진'으로 출발한 블랙야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등산 의류와 용품을 선보이며 전국에 매장을 700여 개로 늘렸다. 특히 연내에 유럽 5개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추석선물은 한우실속세트로

강강술래 최대 35%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을 맞아 최대 35% 할인가로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10만원 미만 곰탕과 떡갈비, 불고기 등 한우 실속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지점을 통해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 10인분)는 2만2900원에 판매한다.

곰탕은 HACCP 인증 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냄비에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또한 발색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온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한우 정육 부위나 잡육 대신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정성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아미노산과 비타민E가 풍부한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 메뉴인 한우양념불고기1호(1.3㎏)는 6만원, 술래양념1호(소양념구이 16대)는 3만원, 술래실속(소양념구이16대+한우불고기 1.3㎏)은 13만원에 살 수 있다. 1+등급 이상 한우를 사용한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2.4㎏)는 14만원에 판매한다. 아토피 걱정 없는 발색제를 뺀 웰빙간식 갈비 및 쇠고기육포세트(6봉)는 2만5900원에 판매한다.

구석구석

◆의정부 북페스티벌
-날짜 9월 7일
-장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예술의전당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길놀이 사물 공연을 시작으로 내서재 사진전, 연극 시놉시스 시장, 브라스 밴드 퍼포먼스, 아름다운 우리 집 서재 사진전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함께하는 독서토론회와 김애란 작가가 자신의 삶과 책을 소개하는 은혜의 책 북콘서트, 청소년 연극 공연, 시민들의 기부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책장 등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시흥 갯골축제
-날짜 9월 6~8일
-장소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소금꽃이 피었다, 갯골에 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어령선 퍼레이드, 해설이 있는 갯골 여행, 야간 갈대숲 갯골의 길감, 사람의 길감, 어쿠스틱 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소금밭 함께놀이터, 소금 조형물 조각, 천연염색 퍼포먼스 등의 체험 행사와 갯골 사랑 미술대회, 자연생태 도서전, 갯골 뱃놀이, 갯골 조각전 등의 부대 행사가 눈에 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날짜 9월 6~10일
-장소 충북 충주시 충주세계무술공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을 중심으로 택견 한마당, 세계 무술공연, 국제 무예연무대회, 종합격투기대회 등 다양한 무술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 무술 창작극, 주막대장 입검엽 용 비롯해 어린이 점프 공연, 온라인 챔피언대회 익헨 크래쉬 등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술 체험 행사도 다양하다.

지난해 축제에서 사람들이 사과 소원문 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더 풍성하고 즐거운 축제가 기다린다.

맛있는 가을추억 '주렁~주렁~'

'제7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라는 슬로건 아래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북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400억여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며 전라북도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로 올해도 한우와 사과의 본고장답게 '레드 장수 페스티벌'을 주제로 장수를 찾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500명 푸짐한 한우 시식

축제 이름에 걸맞게 장수 한우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먼저 마련된다. 무항생제 청정 장수 한우가 축제 기간 저렴하게 제공되고 1500여 명이 동시에 한우를 시식할 수 있는 80m 길이의 한우마당이 축제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또 축제장 인근 사과농장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 출하되는 크고 싱싱한 장수 사과를 직접 수확해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기에 축제 기간 내내 어린 무대

사과 따고 한우 먹고…팍팍 쏘는 시식 이벤트에 목장체험·로데오·사과떡메치기 등 신나는 사흘

와 이벤트 무대에서는 쌀 사금 체험 행사와 레드 푸드 요리 경연대회, 한돈 돼지고기 시식회 등이 펼쳐지며 우수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눈과 입이 즐거운 축제로 재미를 더한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볼거리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전국 최초로 열리는 한우 곤포(한우 먹이) 다르기 대회다. 10명이 한 팀을 이뤄 총 20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릴레 토너먼트 경기로 300~350kg에 달하는 곤포를 들고 25m 반환점을 돌아 먼저 운반하는 팀이 우승하는 경기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게다가 축제 2일차인 7일에는 음력 7월 보름 송래들이 부처를 공양하는 날 풍요를 기원하는 장수지역의 영농 문화인 깃절놀이가 펼쳐져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흥을 돋운다.

한우, 사과와 함께 또 하나의 대표 레드 푸드인 오미자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오미자 족욕 체험으로 재미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으며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주 7942와 오미자 와인 오미시한은 축제의 별미 중 별미다.

◆남녀노소 누구다 즐기는 한마당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축제에는 한우목장 체험, 로데오 체험, 육고기 잡기 체험, 수십자전거 체험, 사과 떡 메치기 체험, 황금사과를 찾아라 등 축제를 찾은 이들이 쉽게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또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의암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이 화려한 불꽃놀이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게 된다.

/장수=황재용기자 hsoul@metroseoul.co.kr

-날짜 9월 6~8일
-장소 전북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문의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종합안내소 063)352-2011

덕산계곡 캠핑·승마체험…가족여행에 딱 좋아!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높다는 전북 장수에는 신호등이 3개뿐이 없다. 그만큼 한적하고 깨끗한 고장인데 장수의 여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도 여럿 품고 있다.

◆외로운 여인의 향기 '논개사당'

축제장 앞에는 논개사당(왼쪽 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임진왜란 때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든 논개는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태생인 이 고장의 자랑이다. 논개의 조상화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논개사당은 장수를 찾았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명소가 됐다. 저수지를 만들면서 마을 전체가 수몰됐지만 지금 2000년 복원된 논개생가와 주촌 마을도 둘러볼 수 있다.

◆국내 첫 가족 휴양촌 '덕산계곡'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가족 단위 휴양시인 방화동 가족 휴양촌과 덕산계곡(오른쪽)은 맑은 공기와 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방화동 가족 휴양촌 오토캠핑장은 취사장, 샘삼, 물놀이장, 잔디밭 지압로, 삼림욕장, 등산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용소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 따라 걷는 길은 늦더위를 잊고 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온가족 말 타고 "이랴~이랴~"

장수에서는 승마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승마장은 마필 2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트로이목마, 실외승마장, 방문자쉼터, 희귀 말 전시장, 방목장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말타기에 좋다. 높이 15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트로이목마와 방목장은 가족 휴식 공간으로 제격이다.

/황재용기자

"괴물 성장통 그린 애니에 놀랄걸요"

'몬스터 대학교' 들고 한국 온 픽사 스튜디오 댄 스캔론 감독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픽사(이하 픽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처음 한국을 찾았다. 12일 개봉될 '몬스터 대학교'의 댄 스캔론 감독과 코리 라이 프로듀서가 2박3일의 일정으로 4일 대한했다. 홍보를 위해 도착 당일 서울 남산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이들은 작품 속 두 주인공인 괴물 마이크와 설리처럼 시종일관 유쾌한 언변을 과시했다.

"오늘은 내가 몬스터" 댄 스캔론 감독이 극중 괴물처럼 겁주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기발한 상상+탄탄한 짜임새

이 애니메이션은 2001년 개봉됐던 '몬스터 주식회사'의 프리퀄이다. 상영 첫 주 사흘 동안 북미 지역에서 6350만 달러(약 700억원)를 벌어들였던 '주식회사'에 이어 '대학교'도 올해 6월 개봉 당시 8200만 달러(약 902억원)를 쓸어담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인간들을 겁줘 얻어내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몬스터 주식회사의 단짝 마이크와 설리가 몬스터 대학 시절에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1편에 버금가는 기발한 상상력과 짜임새 넘치는 이야기가 전 연령대의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픽사의 대표작인 '카'와 '토이 스토리 2'에서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활약했고 '~대학교'로 첫 메가폰을 잡은 스캔론 감독은 "애니메이션으론 처음 시도되는 프리퀄이란 점 때문에 매우 어려웠지만 무척 흥분되는 작업이었다"며 "결말부가 이미 정해져 있는 프리퀄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려 애썼다. 외모과 열정만 앞서는 두 주인공이 시련을 딛고 '겁주기'의 달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새로운 제작기법 도입

발표하는 작품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로 유명한 픽사는 '~대학교'에서도 여지껏 보지 못했던 제작 기법을 선보인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법으로 빛에 사실감을 더하고, 역대 애니메이션 사상 가장 많은 22만7000여 개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과시한다.

또 1편에선 기술의 한계 탓에 털복숭이 괴물이 설리 한 마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수십 마리로 늘어나 한층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캔론 감독은 "미 동부와 캘리포니아주 일대의 대학들을 돌아다니며 실제 캠퍼스 전경과 학생들의 행동 방식은 물론 지저분한 기숙사 방까지 모두 참고했다. (웃음) 극중 몬스터 대학과 재학생들이 왠지 낯익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라며 "마이크와 설리의 친구로 마마보이 괴물인 스쿼시의 목소리는 한국인 아티스트 피터 손이 더빙했다"고 제작에 얽힌 비화를 공개했다.

결말 정해진 프리퀄 되레 장점
스토리보드 22만여개로 최다
캐릭터들의 움직임 살아있죠
한국영화산업 성장 잘 압니다

▶스토리·유머·감동 있다면 레디고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는 듯했다. 라이 프로듀서와 스캔론 감독은 "한국 영화 산업이 대단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꼭 오고 싶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애석하게도 한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본 작품이 없다. 제작 기간인 5년 동안 워낙 바빠 할리우드 영화도 보지 못했을 정도"라며 양해를 구했다.

할리우드, 아니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업계의 주축들답게 자신감은 넘쳐흘렀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대상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면서 애니메이션의 입지가 좁아지고 생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타개책은 있는가"란 질문에 라이 프로듀서는 "픽사는 언제나 전 연령층을 상대로 작품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스토리·유머·감동이 있는 작품이 준비되면 제작에 들어갈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디자인/김아람

star bag

'버킷리스트' 공동 MC 맡는다

오현경과 **김지영**이 5일부터 방송될 KBS W '버킷리스트'에서 공동 MC를 맡는다. KBS 측은 4일 "학창질 수술로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오현경과 희귀병 투병 사실을 고백한 김지영이 공동 진행자로 공감하는 멘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군의 태양' 5번째 OST 참여

부활의 **정동하**가 SBS 수목극 '주군의 태양' 다섯 번째 OST에 참여했다.

정동하가 부른 '미스터리'가 4일 낮 12시에 공개됐다. 이 곡은 현란한 기타 연주가 돋보였던 1~3회의 엔딩송인 '후회'를 정동하기 특유의 애절한 음색으로 재해석한 노래다.

'방과 후 복불복'서 19금 연기

염정아(왼쪽)와 **윤승아**가 코믹한 19금 연기를 펼쳤다. 드라마툰 '방과 후 복불복' 2화에 출연한 이들은 드라마 페이스북에 극중 모습 일부를 공개했다. 체육을 들고 있는 염정아와 짧은 머리로 키스를 하기 직전인 윤승아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정이' 촬영장에 200인분 삼계탕

김범과 **이광수**가 MBC 월화극 '불의 여신 정이' 촬영장에 통 큰 밥차를 선물했다. 이 드라마에 함께 출연 중인 두 사람은 최근 용인의 한 세트장에 200인분의 삼계탕을 지려 제작진의 사기를 북돋았다.

조용필 '헬로'로 열도팬 만난다

내달 일본어 버전 출시

가왕 조용필(사진)이 19집 '헬로'로 일본 팬들과 15년만에 다시 만난다.

소속사인 YPC프로덕션은 4일 "'헬로'의 일본어 버전 녹음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현지 발매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용필은 앨범 출시 당시인 5월 기자간담회에서 "유니버설 뮤직과 손잡고 일본어 버전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음반은 이르면 다음달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일본에서 발매될 예정이며 2PM 택연이 곡 저작권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원조 한류스타이기도 한 조용필은 1998년 공연 이후 일본 활동을 중단했는데, 현지 콘서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음반 업계에 정통한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본은 노장 뮤지션을 아끼는 분위기이므로 조용필의 음반 출시가 아이돌 일색의 한류 열풍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조성준기자

송인화 대마초 흡연 혐의 입건

개그우먼 송인화(사진)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송인화와 언니 송모씨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 자신들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모발검사 등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고 진술했다.

/처현정기자 tak0427@

신인 엑소 진짜 '물건'이네

1집 판매량 70만장 돌파… 12년만의 기록

요즘 밤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옥을 찾는 여성 팬들이 이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

여고생들은 물론이고 20~30대 외국인들까지 섞여있는데, SM 소속 가수들이 탑승한 것으로 예상되는 외제 승합차가 사옥 앞에 도착하면 이들의 입에서 어김없이 "엑소다!"란 탄성이 터져 나온다.

새내기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를 향한 팬들의 이 같은 열기가 최근 보기 드물게 기록적인 음반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4일 SM에 따르면 엑소의 1집 'XOXO(키스 & 허그)'가 발매 석 달여 만에 73만7159장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자체 집계됐다. 6월 초와 지난달 초 차례로 출시된 1집(42만4260장)과 1집의 리패키지 음반(31만2899장)을 합친 결과다.

SM의 한 관계자는 "음반 70만장 돌파는 한국음악산업협회 데이터 기준으로, 김건모와 7집(139만장)과 조성모의 4집(96만 장)이 나란히 발표됐던 2001년 이후 12년만"이라며 "온라인 음원 판매 위주로 시장이 바뀐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6명과 중국인 6명으로 구성된 엑소는 '으르렁' 등 같은 노래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르는 이른바 동시다발적 블록버스터 전략을 앞세워 국내 대부분 방송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아시아 전역을 공략 중이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긴장+위트…성욕의 변주곡

film review

/유순호 기자

■뫼비우스

가족간 얽히고 설킨 욕망 나눠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 속 인물이 지닌 욕망의 순환은 뫼비우스 띠의 성질과 닮았다. 어느 지점에서나 띠의 중심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 결국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는 기하학적 특징처럼 한 가족을 중심으로 얽힌 성욕은 연쇄적으로 가해와 피해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남편(조재현)의 외도로 증오심에 차 있던 아내(이은우)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아들(서영주)의 성기를 자르고 집을 나간다. 자신 때문에 불행해진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버지는 모든 원인이 된 자신의 성기를 잘라 아들에게 이식하려 한다.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 끝에 일반 상영이 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다른 국내외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비교해도 유명세만큼의 큰 시각적 충격은 주지는 않는다. 아들의 꿈 속에서 벌어지는 모자 동침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오히려 눈을 질끈 감게 하는 장면은 스킨 마스터베이션(신체에 고통을 줘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극을 이끌어 가면서도 허를 찌르는 위트를 선사하는 조재현을 비롯해 1인 2역을 소화한 이은우와 16세에 불과한 서영주 모두 대사 없이도 흡입력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5일 개봉.

한편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측은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뫼비우스'를 3일(현지시간) 상영하기에 앞서 특별히 김 감독 일행을 위한 레드카펫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집행위원장은 '피에타'로 지난해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김 감독의 이름값을 고려해 경쟁 부문이 아님에도 이 같은 행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HOTO

스칼릿 조핸슨 아찔한 가슴골

할리우드 미녀 스타 스칼릿 조핸슨이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도섬에서 열린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언더 더 스킨' 시사회에서 풍만한 드레스 자태를 뽐내고 있다. 뤽 베송 감독의 신작 '루시'에서 최민식과 공연할 것으로 알려진 조핸슨은 이 영화에서 인간 사냥에 나선 외계인을 연기한다. /AP 뉴시스

▶ 이런 외계인이라면 사냥의 제물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조성준 기자 when@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10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보다 시술' 부담없네

꼬리뼈 내시경레이저·플라즈마 감압술 등 대표적 비수술 치료법
전신마취·피부절개 않고 30분 내외 시행…직장인·노년층에 도움

직장인 손모(29)씨는 최근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방문했다. 몇 개월 전부터 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지만 병원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바쁜 회사 생활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보다 회복 기간이 긴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진단 결과 손씨의 상태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손씨는 진료 당일 바로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을 받고 퇴원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세바른병원의 정성삼 대표원장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척추질환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개 않고 국소마취… 부담 낮춰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는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이다.

환부를 절개하지 않고 미세한 관(카테터)을 삽입해 진행하는데 카테터에는 내시경이 장착돼 있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레이저로 염증, 유착, 디스크 탈출 등의 증상을 제거한다. 즉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 시술의 가장 큰 특징은 MRI에서도 찾지 못하는 병변을 내시경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바른병원 정성삼(왼쪽) 대표원장과 김주현 대표원장이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MRI로 찾기 힘든 병변도 파악

세바른병원의 김주현 대표원장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시술이므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기존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즈마감압술 역시 또다른 비수술 치료 중 하나다. 국소마취하에서 진행되는 이 시술은 1mm 정도의 가느다란 주삿바늘을 디스크 내부에 넣은 뒤 플라즈마광을 발생시켜 디스크 내부를 감압시키는 치료법으로 손상된 부분만 치료할 수 있다.

◆당뇨 등 전신질환 있어도 가능

이들 비수술 치료는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아 금방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직장인과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황재용기자

멍멍아, 너도 풀무원 맛 보자~

반려동물 먹거리사업 진출 브랜드 '아미오' 제품 출시

풀무원이 반려동물 사업에 진출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려동물 건강 먹거리 브랜드 '아미오(ami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육·통곡물·견과류를 그대로 사용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양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유기농 곡물 등 최적의 천연 원료를 주로 사용했다.

풀무원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반려동물 건강먹거리 브랜드 신제품 '아미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출시되는 아미오 제품은 유기농급 주식 5종과 간식 4종으로, 풀무원건강생활의 아미오몰·올가홀푸드와 강남애견카페 등에서 판매된다. 향후 풀무원건강생활의 방문 판매 조직원 및 동물병원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풀무원은 반려견 사료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양이 식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변비 우습게 봤더니 '대장암 신호'

지난 3년간 수술환자 7명 중 1명 겪은 증상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변비가 대장암의 주요 증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2010년 1월부터 지난 3년간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24개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1만7415명의 환자에게 대장암 발견 전 대장 관련 증상의 변화 유무를 조사한 결과 7명 중 1명이 변비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대장암 진단 전에 대장 관련 증상 변화를 경험한 환자는 63.7%였으며, 그중 23.5%는 변비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및 고령의 대장암 환자일수록 주요한 증상 변화로 변비가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대장암 발견 전 대장 관련 증상 변화를 경험한 여성 환자 4628명 중 24.1%에서 변비 증상을 보였고 이는 전체 남성 환자 중 변비 증상을 보인 비중(23.2%)보다 다소 높았다. 또 60세 이상의 환자 6367명 중 24.2%도 변비 증상을 호소해 60세 이하 환자(22.6%)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장암 진단 병기별로 증상 변화의 경험 여부를 분석했을 때 대장암 병기가 높을수록 변비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암 발견 시 1기 이상의 병기를 가졌고 대장 관련 증상 변화를 경험한 환자는 총 1만931명으로 변비의 경우 1기 17.5%, 2기 21.1%, 3기 26.1%, 4기 29.4%로 병기가 높을수록 변비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김광호 이사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그동안 변비는 대장암의 주요 증상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낮아 증상이 있어도 방치하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변비가 심해지면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Are you married? 가족에 대해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Hey, Jacob! Long time no see!
B Hi Angie, how are you?
A I'm doing well, thanks. You look great!
B Thanks. So 조지는 누구와 결혼했니?
A Oh, I don't know. What about Jane and Kevin? Are they married?
B Oh, yes. 제인과 케빈은 결혼한 지 꽤 오래 됐어.

정답 Who did George marry? / Jane and Kevin have been married for quite a few years.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marry로 다양하게 말해보기

marry는 ~와 결혼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marry를 사용하여 청혼을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ex. Please marry me. 저와 결혼해주세요.
I would like to marry you.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일 때는 be동사를 앞에 쓰고 뒤에 오는 marry를 married로 바꾸어 말합니다.

ex. I am married. 저는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말할 때는 married 뒤에 to+사람 이름 을 이어 말합니다.

ex. I am married to John. 저는 존과 결혼했어요.

명사의 소유격

▶ 사람 명사의 소유격은 (소유한 사람 s + 명사)로 표현한다

단수명사	명사 뒤에 's를 붙임
s/ es로 끝나는 복수명사	명사 뒤에 아포스트로피(')만 붙임
s/ es로 끝나지 않는 불규칙 복수명사	명사 뒤에 's를 붙임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When is Jane's birthday? 제인의 생일은 언제예요?
2 My cousins' names are Jim and Terry. 내 사촌들의 이름은 짐과 테리예요.
3 This is the men's outfit section. 이곳은 남성복이 있는 구역이에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On July 23 Mr. Saito will be named chairman of the board _______ president of Tairex Electronics.
(A) as well as (B) more
(C) added (D) such as

02 Arcosa Design Ltd. offers digital and print design _______ that fit the individual client's requirements.
(A) to service (B) service
(C) serviced (D) services

01 7월 23일에 사이토 씨는 타이렉스 전자의 사장이자 이사회의 회장으로 지명될 것이다
해설 명사구 chairman of the board와 명사구 president of Tairex Electronics를 대등하게 연결하여 ~뿐만 아니라 ~도를 의미하는 (A) as well as를 써야 한다.
어휘 name 지명하다 chairman 회장 board 이사회 president 사장
정답 (A) as well as

02 아르코사 디자인 사는 개인 고객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디지털 및 인쇄물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설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절에서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켜야 한다. that절의 동사가 복수형 fit이므로 선행사인 명사도 복수인 (D) services를 써야 한다.
어휘 fit 맞다 requirement 요구 조건
정답 (D) service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숫자 읽기

Part 4에서 제시되는 표에는 시간, 날짜, 금액 등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 표현은 읽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시간

10:00 A.M	ten A.M	11:45 A.M	eleven forty-five A.M
12:00 P.M.	twelve P.M	2:00-3:00 P.M	from two to three P.M

to/before(~전), past/after(~후), a quarter(15분), half(30분)를 이용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15	a quarter past ten	3:15	a quarter after three
11:45	a quarter to twelve	8:45	a quarter before nine
4:30	half past four	5:30	thirty minutes after five

Tip 2:00-3:00 P.M.는 between two and three P.M.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half는 [l] 발음을 하지 않고 [hæf]로 발음합니다.

이병규 9회말 끝내기타

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LG 9회말 무사 1·2루 7번 이병규가 끝내기 안타를 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LG, SK 잡고 1위 탈환 ·두산 5연승 질주

LG 트윈스가 이병규(7번)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15일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LG는 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SK 세 번째 투수 박정배를 상대로 정성훈과 박용택이 연속 안타를 쳐 무사 1·2루 찬스를 잡았다

이어 1-1로 맞선 9회말 이병규의 끝내기 중전 안타로 2루 주자 정주현이 홈으로 들어와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승리로 63승44패를 기록해 KIA에 패해 최근 3연패를 당한 삼성(61승2무44패)을 반 경기 차로 제치고 15일 만에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이날 두산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이자 4년 연속 100만 관중(100만9834명)을 돌파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삼성은 대구 홈 경기에서 선발 윤성환의 예상치 못한 부진 속에 KIA에 5-7로 져 1위를 내줬다

두산은 대전구장에서 김현수의 홈런 등 14안타로 한화에 7-5로 승리했다 한화전 3연승을 거둔 노경은의 시즌 성적은 9승8패가 됐다

목동구장에서는 넥센이 롯데를 상대로 5-2로 승리했다

/박진환기자 six2427@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4일

■잠실

SK	000	100	000	1
LG	000	001	001	2

승=유원상(3승1패) 패=박정배(2승2패)

■목동

롯데	000	000	200	2
넥센	010	020	02X	5

승=(1루수=)조상우(2승) 세=손승락(2승2패 35세이브) 패=옥스프링(10승7패)

■대전

두산	203	010	100	7
한화	200	000	300	5

승=노경은(9승8패) 세=정재훈(5승4패 3세이브) 패=김혁민 홈런=김현수(16호 3점)

■대구

KIA	030	031	000	7
삼성	000	000	203	5

승=양현종(9승2패) 세=윤석민(6승6패 5세이브) 패=윤성환(10승6패) 홈런=나지완(18호) 김주찬(7호)

추신수 내친김에 MVP?

현지언론 다크호스 꼽아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올 시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 경쟁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현지 CBS 스포츠는 4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의 MVP 후보를 점치는 기사에서 내셔널리그의 MVP 후보를 가운데 두 번째로 추신수를 꼽았다

CBS 스포츠는 "어려운 포지션인 중견수로 옮긴 뒤에도 더 잘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고 있다"며 "타율·출루율·장타율·홈런율에서 모두 상위권에 올라 있다 특히 내셔널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3차례나 출루했다"고 분석했다

내셔널리그 MVP 후보들 가운데 1위는 폴 골드슈미트(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이 차지했으며 추신수의 팀 동료인 조이 보토와 맷 카펜터(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아메리칸리그에선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추신수는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계속된 세인트루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무안타에 볼넷 3개를 기록했다

연속 안타 행진은 6경기에서 멈췄지만 뛰어난 선구안으로 팀의 1-0 승리를 도왔다

/조성훈기자 when@

이대호 시즌 22호포 쾅!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의 이대호(31)가 올 시즌 22번째 홈런을 날렸다

이대호는 4일 일본 오사카의 교세라돔에서 열린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6회 투런 홈런을 뽑아냈다

지난달 29일 라쿠텐전 이후 엿새 4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다

이대호는 6회 무사 1루 볼 카운트 1볼에서 상대 선발 투수 가라카와 유키의 시속 133㎞짜리 2구째 바깥쪽으로 치우친 직구를 받아쳐 홈런을 만들었다 이로써 4타수 1안타를 기록해 시즌 타율 0.310을 유지했다

오릭스는 이대호의 홈런을 포함해 6회에만 4점을 뽑아 4-0으로 완승했다

/박진환기자